

## 2016년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 부문 꾸준한 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

Danes Brzica Assistant Professor  
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,  
Slovak Academy of Sciences

### ■ 주요 내용

- 1990년대 이후, 슬로바키아는 중부 유럽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, 3개의 글로벌 브랜드(Volkswagen, Peugeot Citroën, Kia Motors)의 현지 진출 및 투자의 영향이 큼.
-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 부문은 현지 고용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, 경제 전반에 직,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.
-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기존 글로벌 3개 기업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 약 100만대로 예상되는 3개 기업의 생산 규모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생산 대수를 높이기 위해서 JLR의 투자 확정이 절실한 상황임.

KIEP **대외경제정책연구원**  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
TEL 044-414-1076 E-MAIL [emerics@kiep.go.kr](mailto:emerics@kiep.go.kr)  
<http://www.emerics.org/> <http://www.kiep.go.kr/>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 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## 1 이슈 현황

☒ 1990년대 이후, 슬로바키아는 중부 유럽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, 글로벌 브랜드 3개사의<sup>1)</sup>의 현지 진출 및 투자의 영향이 큼.

- 슬로바키아가 중부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한 것은, 1990년대 초 독일 기업 폭스바겐(Volkswagen)이 슬로바키아 자동차 기업 Bratislavske automobilove zavody(BAZ)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시작됨.
  - BAZ의 지분을 General Motors(미국)보다 더 많이 사들임과 동시에, 추가적인 자동차 공장을 수도 Bratislava에 건설함.
  - 이후 폭스바겐(Volkswagen)은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 시설을 갖추며 선두 위치에 오름.
  - 현재 자동차 부문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이자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며 3개의 자동차 기업 모두(VW, PSA, KIA) 슬로바키아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.

표 1. 2015년 슬로바키아 진출 자동차 기업 매출액 규모

(단위: 천 유로)

기업명	매출액	순이익	자본금	소득세
Volkswagen Slovakia, a.s.	7,227,454	127,459	2,348,932	85,420
Kia Motors Slovakia, s.r.o.	5,073,403	210,138	2,190,016	60,100
PCA Slovakia, s.r.o.	2,448,562	26,962	625,693	8,898

- 슬로바키아에서 폭스바겐이 성공적으로 진출한 이후, 다른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하청기업(1.2차 벤더)들의 진출 활발해짐.
  - 글로벌 기업의 하청업체가 슬로바키아 진출함에 따라 완성품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.

1) Volkswagen, Peugeot Citroën, Kia Motors

그림 1. 슬로바키아 자동차 생산대수 현황 및 전망

(단위: 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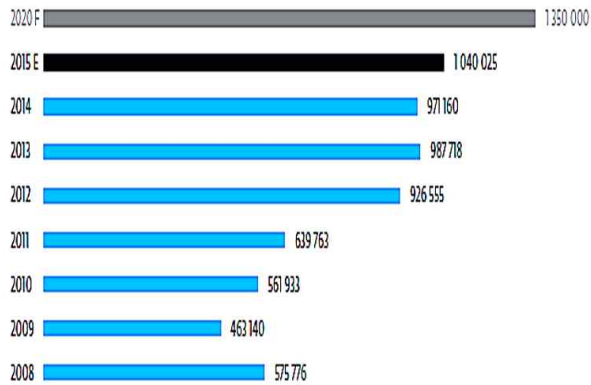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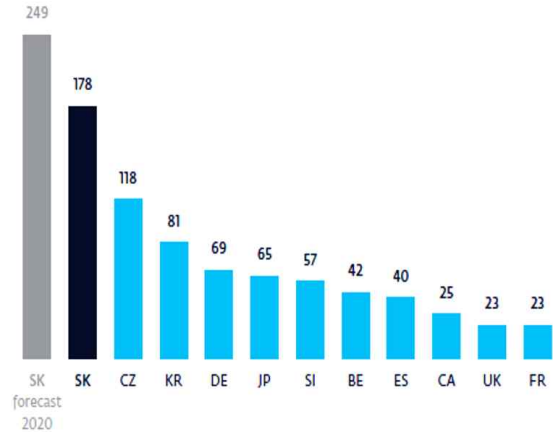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국가별 1,000명 당 자동차 생산량

(단위: 대)



- 슬로바키아 완성차, 부품 산업의 성장은 PSA Peugeot- Citroen(프랑스)과 KIA Motors(한국)의 투자가 시작되면서, 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.
  - 두 기업 모두 2006년부터 슬로바키아 현지 생산 공장을 가동했으며. PSA Peugeot- Citroen의 경우 2003년 슬로바키아 법인 설립을 통해 시장에 진입함.
  - 최근, PSA Peugeot- Citroen은 최근 트르나바(Trnava) 근처로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 자동차 내장 플라스틱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.

그림 3. 슬로바키아 서부 지역 1, 2차 자동차 벤더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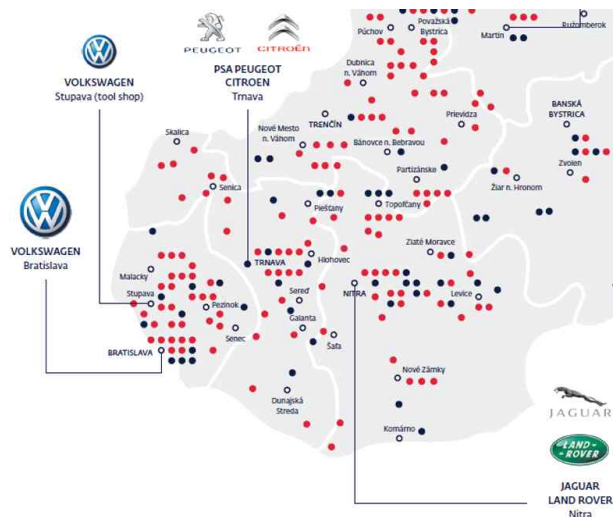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슬로바키아 VW, KIA, PSA 생산공장 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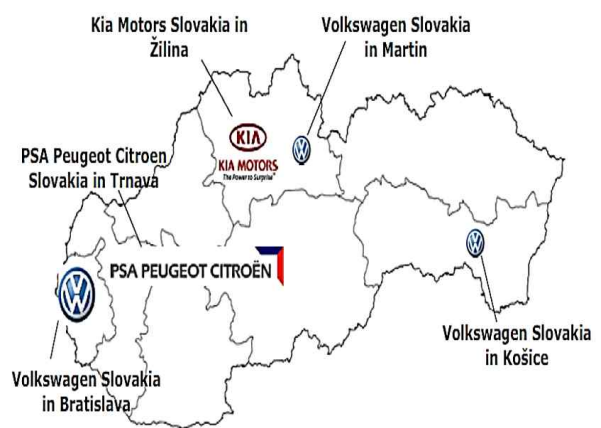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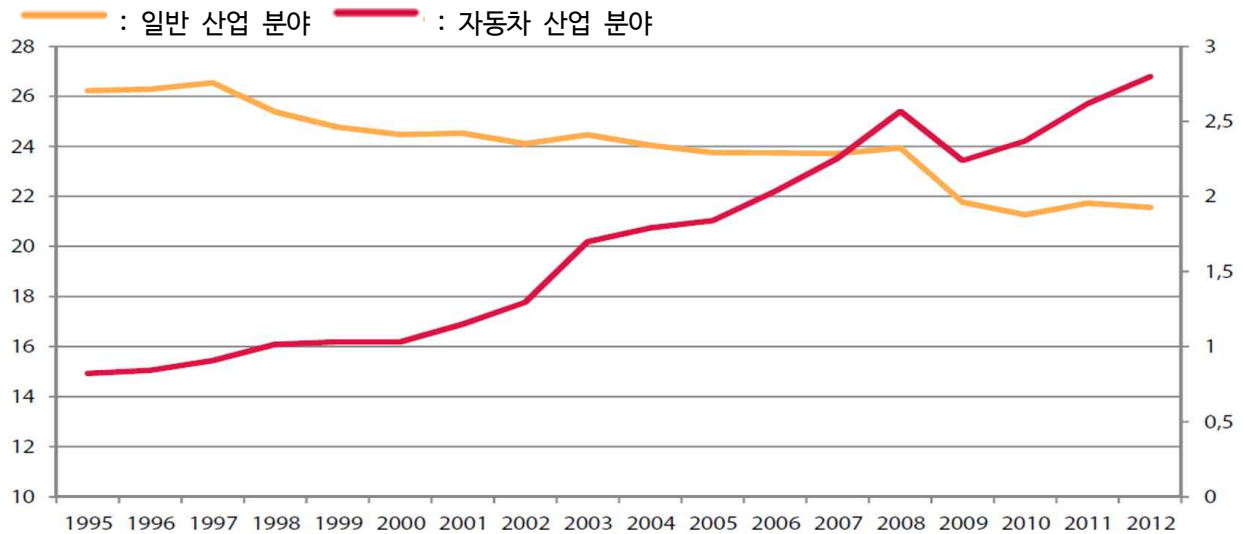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슬로바키아 일반 산업 분야 고용 점유율, 자동차 산업 고용 점유율 비교

(단위: %)



## 2 원인 분석

❑ 자동차 부문은 현지 고용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, 경제 전반에 직,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.

- 슬로바키아 경제에 자동차 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막대하며, 현지 지역별 수평적 성장을 위해 자동차 생산 지역을 전 국토로 점차 넓혀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
-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산업의 강점은 다음과 같음.
  -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생산 산업 기반
  - 고등 기술 교육을 받은 숙련된 인력
  - 저렴한 인건비용
  -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개방 경제 정책
- 슬로바키아 정부는 국가 산업 성장 및 육성을 위해, R&D 개발과 연구 혁신을 기초로 하는 RIS 3 전략을 추진해옴.
  - 천연자원, 신기술, 제조, 물류 프로세스, 인적 자원의 혁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, 이는 슬로바키아 모든 산업 분야 성장의 원동력이 됨.
  - RIS 3 정책 이전에는 해외 자원과 기술을 구매해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, 이러한 기조는 오랫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.

- RIS 3의 정책 아래, 슬로바키아 정부가 집중 육성하려는 분야는 아래와 같음.
  - 자동차 산업 및 기계 공학
  - 가전제품 및 전기 제품
  -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상품 및 서비스
  - 철강 생산품 및 가공

**☒ RIS 3정책을 보면, 국가 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에 자동차 산업이 최상위 육성산업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.**

- 슬로바키아 정부가 추구하는 자동차 산업 육성은 총 네 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, 구체적 실행 방안은 아래와 같음.
  - 첫 번째 측면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와 여러 하청기업들을 동반 성장을 주도하고, 사업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함.
  - 두 번째 측면은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업무 연계성을 높여나감.
  - 세 번째 측면은 하청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조직으로 발전시켜 통합 회사를 설립하는 것
  - 마지막 측면은 자동차 생산에 최신 기술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R&D 및 설계에 투자함.
- 기존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3개 자동차 브랜드 이후, Jaguar Land Rover(JLR)가 진출을 선언한 상황이며, 2019년의 생산 라인 가동을 목표로 약 14억 유로의 기반 시설 투자가 예정되어 있음.
  - JLR은 2019년 슬로바키아 니트라(Nitra) 지역에 생산 공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, 연간 약 15만대의 생산 규모와 1만 5,000명의 직, 간접적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.
  - 그러나, 일각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계획에 따라, JLR의 슬로바키아 진출 프로젝트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.

### 3      **전망과 시사점**

- ☒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기존 글로벌 3개 기업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**
- ☒ 약 100만대로 예상되는 3개 기업의 생산 규모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생산 대수를 높이기 위해서 JLR의 투자 확정이 절실한 상황임.**

- 최근까지,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 부문은 3개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의 수용 능력에 따라 생산량 한계에 정체해 있음.
  -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 JLR의 시장 진입에 따라 기존의 총 생산량을 넘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.
  - 그러나 최근 기사에 따르면, JLR이 슬로바키아 니트라(Nitra)에서의 생산라인 투자를 잠정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짐.
  - 이미 자동차 생산량이 최대치에 도달했으며, 추가적인 생산 라인 건설 없이는 현 생산 규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.
- JLR의 투자 이외,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폭스바겐(VW)과 PSA가 될 가능성이 높음.
  - 폭스바겐은 슬로바키아 신규 생산 라인에 8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, 이는 곧 공개될 차세대 Porsche Cayenne 모델 생산을 위한 것으로 알려짐.
  - 실제 생산 라인 가동은 2017년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, 차세대 VW Touareg도 생산할 예정
  - 폭스바겐은 슬로바키아의 생산 규모가 자사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.
  - 2016년 PSA의 생산품은 315,000대로 추정됨(연간 성장률 4%).
- 생산 라인의 자동화 작업과 하청기업 네트워크 개발, 숙련된 노동력의 확대는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 번영의 큰 촉진제가 되고 있음.
  - 위에 언급된 요인 중에서도,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수의 숙련된 노동력 확보라고 할 수 있음.
  - 정부는 기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중등학교와 전문대학/종합대학에서의 기술 교육을 활성화하고, 다가오는 산업 4.0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적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 **EMERiCs**

#### 출처

ZAP, Hospodarske noviny, Pravda, Trend, Reuters, Finstat and press releases 등